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인도 금융서비스 시장 동향

인도에는 다양한 금융 분야가 있으며,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2016년 11월 발표된 Demonetization(화폐 폐기), 그리고 wallets, UPI(Unified Payment Interface), 분석 및 결제은행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16년 인도준비은행(RBI)은 은행 및 보험사를 제외한 규제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 회사에 자동적으로(automatic route)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금융 부문에는 은행, 연금, 보험, 자본 시장, 투자 관리, 부동산 투자, 외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인도 금융서비스 시장 개황

KPMG와 인도산업연합(CII)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0년까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 부문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스탠다드&푸어스(Standard & Poor's)는 인도 은행 부문의 신용 성장이 2017년 회계연도에 11~13%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국민들을 위한 금융 수용성(Financial inclusion)이 인도 정부(GOI)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2014년 모디 총리는 은행, 저축 및 예금 계좌, 송금, 신용, 보험, 연금 등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잔 단 요자나(Jan Dhan Yojana)를 발표했다. 2017년 3월 기준 2억 8,000만 잔 단 요자나 계좌가 발행되었으며, 약 98억 달러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1,800만 개의 운용계좌에는 76달러 이상의 예금이 있다. 이 계획은 모든 정부 혜택(센터/주/지방 정부)을 새로운 수혜자의 계좌로 전환하고 RuPay (현지 신용 및 직불 카드)카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단점은 계좌의 24%가 현재 잔액이 없는 휴면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2017년 3월까지 2억 1,900만 RuPay 직불 카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폐기 이후 2,300만 개의 신규 잔 단 요자나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80%)이 공공 은행이었다. 전국적으로 모바일 기술에 대한 접근이 증가함에 따라 전 종류의 금융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 금융서비스 현황

•은행

인도의 은행 부문은 최근 결제은행, 소규모 금융은행의 등장과 더불어 UPI,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Bharat Interface for Money(BHIM), Aadhar enabled Payment System(AEPS)과 같은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인도에는 21개 공공 은행, 26개 민간 은행, 43개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지방 농촌 은행, 협동 조합 은행의 대형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GOI는 은행업의 자유화, 규제,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도입했으며, 기술의 출현 또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인도준비은행의 최근 지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은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인도준비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자국 시장의 무역과 상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 은행을 계속해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내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에 허용되는 모든 은행 활동(예: 도매, 소매, 투자 은행, 외환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American Express, Citibank NA, Bank of America, JP Morgan Chase의 미국계 은행 4곳이 인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Bank of New York Mellon과 Wells Fargo는 인도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보험

인도의 생명보험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약 3억 6,000만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수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2~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2020년까지 보험 침투율을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향후 몇 년 내에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 시장 규모는 791억 4,000만 달러이며 2020년 2,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곡물 보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10년 간 자동차 산업의 높은 성장으로 자동차 보험이 향후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보험 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일반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에는 총 5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생명보험 24개사, 손해보험 29개사, 재보험 기업 1개사가 있다. 인도의 생명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LIC)는 생명보험 분야에서 유일한 공공부문 기업이며, 인도의 GIC(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는 유일한 국내 재보험사다. 그러나 2017년 외국 재보험 회사가 전액 출자한 지사를 개설하면 재보험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인도의 보험 규제개발당국(IRDAI)은 인도의 보험 회사에 대한 새로 개정된 IPO 지침을 발행할 계획이다. 중산층의 증가, 젊은 피보험자, 보호 및 은퇴 계획에 대한 필요성 증가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소들이 인도 생명보험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핀테크(Fin-Tech)

인도에 점차 핀테크가 확산되고 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화폐폐기 정책으로 금융 시스템에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 구현이 시급해졌다. 인도정부는 규제기관인 SEBI, RBI와 함께 강력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무현금 디지털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PayTM과 FINO PayTech, 두 개의 핀테크 기업이 인도준비은행으로부터 결제은행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으며, 인도 소비자들과 기업은 스마트폰 보급, 정부의 금융 수용성 강조, 화폐폐기 정책 이후의 저현금화된 경제, 전자상거래 성장 등으로 인해 핀테크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현재의 핀테크의 허브는 인도의 금융 수도인 뭄바이, 강력한 스타트업 기업과 기술 문화를 가진 벵갈루루,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델리이다.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NASSCOM)에 따르면 인도의 핀테크 소프트웨어 시장은 현재 12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핀테크 부문의 거래 가치는 2016년 약 33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730억 달러로 5년 간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인도-금융 서비스, 2017.8.1.
<https://www.export.gov/article?id=India-Financial-Services>